

1편 - 제목: 아카시아 동산에서 만난 보물들 (아! 나의 선생님)

올해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어느덧 시간은 흘러 모교가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보석같이 소중한 여고 시절을 들쳐 봅니다.

인일 여고에서 졸업반 담임으로 최광만 선생님을 만났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첫 만남의 시간에 ‘integrity, 강직’이라는 선생님의 좌우명을 들려주셨고 그 단어는 저희 3학년 3반 학생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지금까지 삶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을 사모하고 따르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김정숙과 나는 선생님이 관리하시던 상담실에서 청소도 하고 공부하며 무한한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넓고 시원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저희는 골방 같은 상담실을 일 년 내내 고수하며 행복했고 그 상담실에 대한 인연으로 교직 생활 중 저는 진로상담 부장으로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생활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2차 원서를 쓰러 갔을 때 “이 바보 같은 놈” 하시며 안쓰러워하시던 표정은 지금도 미어지게 합니다.

그 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교련 교사로 모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저의 교직 생활 40년을 늘 관심을 가지시고 큰 나무처럼 지켜 주셨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하시던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뇌며 용기를 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위함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작은 아드님이 운영하시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선생님을 뵈는 듯한 기쁨을 느낍니다.

요즈음은 EBS 생활 영어를 즐겨 들으며 우리 선생님의 영향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일여고에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사랑하는 선후배들과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따뜻하고 기쁘게 지내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